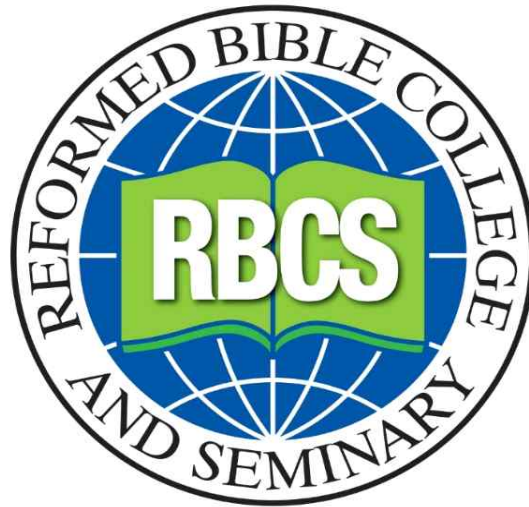


Ευαγγέλιον του Ματθαίου

헬라어 원어 성경 풀이집



by Director Dr. Yeon soo Kim

2. 3. 2021

Reformed Bible College and Seminary

Ευαγγέλιον του Ματθαίου 1

The Genealogy of Jesus 1-17

The Birth of Jesus 18-25

KATA MAΘΘΑΙΟΝ -1:1-10

1.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Δαυεὶδ υἱοῦ Ἀβραάμ.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위드 휘우 아브라함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Libro de la genealogía (los antepasados) de Jesucristo (Jesús el Mesías), hijo (descendiente) de David, hijo (descendiente) de Abraham.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 마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작성한 저자이다. 예수께서 그의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족보를 통해 증명하고자 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자손인(υἱοῦ Δαυεὶδ υἱοῦ Ἀβραάμ. 휘우 다위드 휘우 아브라함)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실 언약을 간직한 사람이었다(창12:1-3). 마태가 예수님을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인물이 바로 예수라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족보의 시작이 그 이전까지 소급되어 아담까지 올라가는 누가의 족보와 달리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 '세계'라고 번역된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는 '출생, 생성의 책'이라는 의미인데 비블로스에는 이미 기록성과 존경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도 하다(W.Bauer). 이 표현은 칠십인역(LXX)의 창2:4에서 '창조의 개략적 진술'(αὐτὴ ἡ βιβλὸς γενέσεως 하우테 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으로 볼 때 마태의 독특한 의도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태의 의중에는 창세기의 처음이 창조를 시작하신 거룩한 사건을 기록하듯이, 새로운 기원을 이루는 사건을 다루는 본서(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의 서두도 그의 탄생에 관한 거룩한 계보를 다룸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70인역의 이 단어를 염두에 두고서 자신의 복음서의 서두를 이렇게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시작한 것이다.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Δαυεὶδ 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위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통은 당연히 다윗에게

서 시작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는 다윗왕을 부각시켰으며 예수가 다윗의 자손됨을 지적함으로써 예수는 바로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다윗의 자손 메시야요 왕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삼하7:13의 나단의 신탁에 나타나는 대로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는 인물이 솔로몬보다 큰 인물을 가리킨다는 사실에 유대인들이 당연스럽게 동의한다면, 마태는 바로 그 인물이 이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다(눅2:25). 한편 예수 크리스투라는 예수의 이중적인 이름에서 전자는 개인적인 이름이요(21절), 후자는 직분상의 이름임을 나타낸다. (cristou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의 메시아 (Meshiah 마쉬하; 기름부음 받은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이다.

2. Ἀβραὰμ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σαὰκ, Ἰσαὰκ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ακώβ, Ἰακώβ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ούδαν καὶ τοὺς ἀδελφοὺς αὐτοῦ, 아브라함 에겐네센 톤 아사악, 아사악 데 에겐네센 톤 야곱 야곱 데 에겐네센 톤 유단 카이 투스 아델푸스 아우투, Abraham begat Isaac; and Isaac begat Jacob; and Jacob begat Judas and his brethren;

Abraham fue padre de Isaac, Isaac de Jacob, y Jacob de Judá y de sus hermanos;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낳았고 이사악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으며

Ἀβραὰμ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σαὰκ,
Ἰσαὰκ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ακώβ,
Ἰακώβ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ούδαν
καὶ τοὺς ἀδελφοὺς αὐτοῦ,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그러므로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러므로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으며

12

(12:3).

(25:1-3)

(15:4;17:1-22;21:1-7).

(胎)

(11:11, 12)

낳고(ἐγέννησεν 에겐네센) 이를 번역하면 '...의 아버지라'(was the father of,NIV)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반드시 친자를 뜻한다기 보다 그 혈통에 이어지는 직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말은 때로 '...의 조상이다', '...의 조상이 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장의 족보 내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삭은...그의 형제를 낳고 - 마태는 이 이름들에서 족보 이상의 것, 즉 선택받은 나라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다.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6절)등이 장자 신분이 아닌 동생들로서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육적 신분의 탁월성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적 섭리의 독특한 방식, 즉 '낮은 자를 높이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키는'(욥 5:11; 겔 21:26) 하나님의 뜻에서 유래한다. 사실 야곱의 12 아들 중 혈육상의 장남은 르우벤이었고, 야곱의 애정은 요셉에게로 많이 기울어졌지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들어 메시아를 일으키셨다. 실로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은총은 인간적 혈통을 초월하여 진행된다(요 1:13). 특히 야곱의 열 두 아들 중에서 유다만이 족보에 이름이 오른 이유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창 49:10)대로 그에게서 다윗 왕가가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와 함께 열두 형제를 언급한 것은 (1) 12지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전형적 모델이다. 이는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여 천국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과도 연관이 있다. (2) 유다에게서 나신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 공동체인 12지파 전체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메시아이다. (3)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로 모으시는 영적 이스라엘(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공유할 것임을 나타낸다.

3. Ἰούδα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Φαρέσ καὶ τὸν Ζαρά ἐκ τῆς Θάμαρ, Φαρέσ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Ἑσρώμ, Ἑσρώ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ράμ, 유다스 데 에겐네센 톤 파레스 카이 톤 사라 에크 테스 다마르, 파레스 데 에겐네센 톤 에스롬, 에스롬 데 에겐네센 톤 아람,

And Judas begat Phares and Zara of Thamar; and Phares begat Esrom; and Esrom begat Aram;

Judá fue padre de Fares y de Zara, cuya madre fue Tamar; Fares fue padre de Esrom, y Esrom de Aram;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자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아람을,

유다는 파레스 낳았고 또 자라를 다말에게서(Ἰούδα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Φαρέσ καὶ τὸν Ζαρά ἐκ τῆς Θάμαρ, 유다스 데 에겐네센 톤 파레스 카이 톤 사라 에크 테스 다마르) 유다는 다말에게서 - '중려나무'란 이름의 뜻을 지닌 다말은 원래 유다의 아들인 엘의 아내였으나, 그 남편이 죽자 그의 시아비 유다를 유혹하여 득남했던 집요한 여인이다(창 38:6;대상 2:4). 한편 모계를 무시하는 유대인의 족보 관습상 다말을 포함하여 본 족보에 등장한 네 여인의 이름(다말, 라합, 룻, 밧세바)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다(물론 예수의 족보 서술상 반드시 필요한 마리아는 제외하고서). 여하튼 이 이름들이 의미하는 것은 심대한 것으로서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Φαρέσ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Ἑσρώμ, 파레스 데 에겐네센

톤 에스롬) 베레스와 세라 - 이 둘은 쌍둥이였기 때문에(창 38:27) 동시에 언급된 것 같다. 한편 이들로부터 다윗까지의 혈통은 룿 4:18-22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Ἐσρώ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ράμ, 에스롬 데 에겐네센 톤 아람,) 헤스론은 아람을 낳았고 유다의 후손들의 족보에서 알 수 있다.

4. Ἀρά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μιναδάβ, Ἀμιναδάβ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Ναασσών,
아람 데 에겐네센 톤 아미나답, 아미나답 데 에겐네센 톤 나아스손,
Ναασσών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Σαλμών,
나아스손 데 에겐네센 톤 살롬.

And Aram begat Aminadab; and Aminadab begat Naasson; and Naasson begat Salmon;

Aram fue padre de Aminadab, Aminadab de Naasón, y Naasón de Salmón;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Ἀρά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μιναδάβ,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Ἀμιναδάβ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Ναασσών,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Ναασσών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Σαλμών,	나손은 살몬을 낳고

아브라함의 현손들인 이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의 기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헤스론(창46:12;대상 2:5), 람(대상 2:9), 아미나답(4절;출 6:23;민 1:7;대상 2:10), 나손(민 2:3;7:12;대상 2:10;눅 3:32), 그리고 살몬(5절;룿 4:20-21;대상 2:11)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인바, 베레스로부터 모세 당시의 아미나답까지 네 세대가 교체되는 기간이 약 4백년(창 15:13;출 12:40)이나 된다는 사실은 본 족보에서 최소한 몇 명의 이름이 생략되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나손은 살몬을 낳고 - 여기서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광야 생활 중 회막 예물 헌상시 제 1일에 예물을 드렸던 자이다(민 7:12).

5. Σαλμών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Βόες ἐκ τῆς Ραχάβ, Βόε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βῆδ
살몬 데 에겐네센 톤 보에스 에크 테스 라랍, 보에스 데 에겐네센 톤 요베드
ἐκ τῆς Ρούθ, Ἰωβῆδ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εσσαί,
에크 테스 루드 요베드 데 에겐네센 톤 에스사이

And Salmon begat Booz of Rachab; and Booz begat Obed of Ruth; and Obed begat Jesse;

Salmón fue padre de Booz, cuya madre fue Rahab; Booz fue padre de Obed, cuya madre fue Rut; y Obed fue padre de Isaí;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았으며 보아즈는 룿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Σαλμών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Βόες	살몬은 보아즈를 낳고
ἐκ τῆς Ραχάβ,	라합에게서

Βόε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βῆδ ἐκ τῆς Ρούθ,
Ἰωβῆδ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εσσαί,

보아스는 요벳을 롯에게서 낳고
요벳은 이새를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 본문에 언급된 라합이 여호수아 2장과 5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기생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살몬은 여호수아가 파견했던 두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성을 공략하고 난 후에 살몬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다. 마태는 라합의 이름을 통해 그녀가 우상 숭배로 만연된 가나안 땅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수 2:11)으로 말미암아 선민의 대열에 동참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롯에게서 - '롯'은 모압 여인으로서 인생의 전환점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시모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믿음의 산 증인이다. 한편 신 23:3에 의하면 모압의 후손들은 십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조차도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축복의 약속을 방해하지는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약속의 자녀(롬 9:8)로 환영되어진다.

6. Ἰεσσαί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Δαυεὶδ τὸν βασιλέα. Δαυεὶδ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이스사이 데 에겐네센 톤 다위에이드 톤 바실레아 다위에이드 데 에겐네센 톤
Σολομῶνα ἐκ τῆς τοῦ Οὐρίου,
솔로모나 에크 테스 투 우리우

And Jesse begat David the king; and David the king begat Solomon of her that had been the wife of Urias

Isaí fue padre del rey David. Y David fue padre de Salomón, cuya madre Betsabé había sido mujer de Urías.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Ἰεσσαί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Δαυεὶδ τὸν βασιλέα.
Δαυεὶδ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Σολομῶνα
ἐκ τῆς τοῦ Οὐρίου,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은 솔로몬을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왕'이란 표현에서 본 족보의 주제가 왕위 계승적 혈통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서 오직 그만이 '왕'으로 기록된 것은 왕권의 언약이 그와 더불어 맺어졌고, 그의 왕권은 메시아 왕권의 예표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삼하 7:12-16). '왕'이라는 단어는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통일 왕국에 대한 깊은 향수를 불러 일으키게 하고 종말론적 메시아 대망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위대한 다윗왕의 자손'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가 다윗의 위(位)를 계승할 자(눅 1:32)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야의 아내 (ἐκ τῆς τοῦ Οὐρίου, 에크 테스 투 우리우) - 충신 우리야를 전쟁터에 몰아넣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부끄러운 범죄를 통해 얻은 아내이다. 이일은 하나님의 축복의 광채를 송두리째 삼켜 버릴 수도 있었던 다윗의 부끄러운 범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마태는 밧세바를 우리야의 아내(삼하 11:3)라고 표현하여 그리스도의 혈통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오점(汚點)을 드러냄으로써 왕국 건설에 있어서 여하한 인간의 공로도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솔로몬 (Σολομῶνα 솔로모나) - 다윗이 자신의 간음죄를 참회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덧 입은' (여디디아, 솔로몬의 또다른 이름;삼하 12:25) 증표로 얻었던 아들이다. 이는 결국 메시아의 혈통이 인간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적 회복과 은총이라는 구속사의 큰 흐름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여기에서 두 번째의 14대 가 시작되며 그들의 명단은 대상 3:10-24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의 족보는 마태와 누가의 기록(눅 3:23-38)이 서로 다르다.

7. Σολομῶν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Ῥοβοάμ, Ῥοβοά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βιά, Ἀβιά
솔로몬 데 에겐네센 톤 로보암, 로보암 데 에겐네센 톤 아비아, 아비아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σάφ,
데 에겐네센 톤 아שא

And Solomon begat Roboam; and Roboam begat Abia; and Abia begat Asa;

Salomón fue padre de Roboam, Roboam de Abías, y Abías de Asa;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아비아는 아삽을,

Σολομῶν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Ῥοβοάμ,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Ῥοβοά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βιά,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Ἀβιά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σάφ,	아비아는 아삽을 낳고

솔로몬의 자손들이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가 아삽을 낳았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그 약속을 버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통해 사악했던 왕 르호보암이 악한 왕 아비아를 낳고, 악한 왕 아비아가 선한 왕 아사를 낳은 것처럼 이 족보의 혈통에 있어서 선과 악의 명백한 패턴은 없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누어지는 일과 이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는 일에 빠진다. 그러나 비록 그들 악한 왕들의 불순종과 배역(背逆)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악한 생각이나 책략들을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그들의 혈통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

8. Ἀσάφ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σαφάτ, Ἰωσαφάτ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ράμ, Ἰωράμ δὲ
아삽 데 에겐네센 톤 요사파트, 요사파트 데 에겐네센 톤 요람, 요람 데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Ὀζείαν,
에겐네센 톤 오제이안

And Asa begat Josaphat; and Josaphat begat Joram; and Joram begat Ozias;

Asa fue padre de Josafat, Josafat de Joram, y Joram de Uzías;

아삽은 여호사밧을, 여호사밧은 요람을, 요람은 우찌야를,

Ἀσάφ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σαφάτ,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	--------------

Ἰωσαφὰτ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ράμ,
Ἰωρά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Ὀζεΐαν,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찌야를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여호사밧은 요람을,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 (Ἀσὰφ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σαφὰτ, Ἰωσαφὰτ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ράμ, Ἰωρά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Ὀζεΐαν, 아삽 데 에겐네센 톤 요사파트, 요사파트 데 에겐네센 톤 요람, 요람 데 에겐네센 톤 오제이안) 이 두 왕 사이에 아하시야(왕하 8:26), 요아스(왕하 12:1), 그리고 아마샤(왕하 14:1) 등 세 왕의 이름이 생략되었다. 이에 대한 여러 해석 중에서 (1) 마태가 인용한 족보에서 이미 그 이름들이 생략되었기 때문, (2)히브리 원문에 대한 70인역(LXX)의 독법의 잘못 때문(Alen, Calvin), (3) 그들이 사악하기로 소문난 아합과 이세벨(왕하 8:27)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한 간악한 왕후이자 왕위 찬탈자(왕하 11:1-20)인 아달라(왕하 8:26)의 자손이므로 3, 4대에 걸쳐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계율(출 20:5)에 따라 생략(Ebrard, M. Henry), (4) 히브리 문학적 기교에 따라 14대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마태가 고의적으로 생략함(Jerome, Light-foot, Carr) 등이 있는데 마지막 14대에서도 명단을 단축시킨 것으로 보아 세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한 듯하다(17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족보에 기록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9. Ὀζεΐα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αθάμ, Ἰωαθά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χαζ, Ἀχαζ δὲ
오제아아스 데 에겐네센 톤 요아담 요아담 데 에겐네센 톤 아카즈 아카즈 데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Ἐζεκίαν,

에겐네센 톤 에제키안

And Ozias begat Joatham; and Joatham begat Achaz; and Achaz begat Ezekias;

Uzías fue padre de Jotam, Jotam de Acáz, y Acáz de Ezequías;

우찌야는 요담을, 요담은 아하즈를,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우찌야는 요담을(Ὀζεΐα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αθάμ,오제아아스 데 에겐네센 톤 요아담) 웃시야 (Ὀζεΐας 오제이아스)를 영어에서는 (Uzziah 우지-아)로 발음을 했다. 물론 킹제임스 버전에는 (Ozias 오지아스)로 번역했다 이는 우리말 번역에 사용된 영어번역이 킹제임스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스페인어 역시 우지야로 발음했다. 요담을 요담은 아하즈를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여기 언급된 웃시야는 아사랴(대상 3:12;왕하 15:13, 17-20비교)와 동일 인물이다.

요담은 아하즈를,(Ἰωαθά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χαζ, 요아담 데 에겐네센 톤 아카즈) 요담(재위 기원전 740년경-736년경)은 분열 유다 왕국의 11대 왕으로 다른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한 왕이었다.

아하즈는 히즈키야를,(Ἀχαζ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Ἐζεκίαν, 아카즈 데 에겐네센 톤 에제키안) 아하스(재위 기원전 736년경-716년경)는 분열 유다 왕국의 12대 왕으로 자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옳은 일들을 하지 않았다. 히즈키야(히브리어: חֲזַקְיָהּ , חֲזַקְיָהּ , Hezekiah, Ezekias, 의미:야훼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남유다 왕국 13대 왕으로 25세에 즉위하여 29년간 통치하였다. 유다 왕국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이며 예언자 이사야가 그의 재위기 때 활동했다.

10. Ἐζεκία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Μανασσή, Μανασσῆ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μών,
에제키아스 데 에겐네센 톤 마나스세, 마나스세스 데 에겐네센 톤 아모스,
Ἀμών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σείαν,
아모스 데 에겐네센 톤 요세이안

And Ezekias begat Manasses; and Manasses begat Amon; and Amon begat Josias;
Ezequías fue padre de Manasés, Manasés de Amón, y Amón de Josías;
히즈키야는 므나쎄를, 므나쎄는 아모스를,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았고,

히스기야는 므나쎄를 낳고(Ἐζεκία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Μανασσή, 에제키아스 데 에겐네센 톤 마나스세), 므나쎄는 아모스를 낳고 (Μανασσῆ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μών, 마나스세스 데 에겐네센 톤 아모스)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Ἀμών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σείαν,아모스 데 에겐네센 톤 요세이안) 히스기야는 29년간 재위하는 동안 남왕조 유다 역사의 빛나는 한 시대를 열었던 신앙적이고 민족적으로 탁월한 왕이었고(왕하 18-20 장), 그의 아들 므나쎄는 55년간 재위하면서 바벨론 포로의 근본적인 원인자가 될 만큼 유대의 운명을 좌초시킨 악한 왕이었다(왕하 24:3). 그럼에도 므나쎄가 앞의 족보에서 탈락된(8절) 세 사람과 다른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크게 회개하여 은혜를 회복하였다는 점이다(대하 33:12, 13).

KATA MAΘΘΑΙΟΝ -1:11-25

11. Ἰωσεία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εχονίαν καὶ τοὺς ἀδελφοὺς αὐτοῦ ἐπὶ τῆς
요세이아스데 에겐네센 톤 에코니안 카이 투스 아델푸스 아우트 에피 테스
μετοικεσίας Βαβυλῶνος.

메토이케시아스 바블로노스

And Josias begat Jechonias and his brethren, about the time they were carried away to Babylon:

Josías fue padre de Jeconías (llamado también Joaquín) y de sus hermanos durante la deportación a Babilonia.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니야와 그의 동생들을 낳았다.

요시야는 여고니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Ἰωσεία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εχονίαν καὶ τοὺς ἀδελφοὺς αὐτοῦ 요세이아스데 에겐네센 톤 에코니안 카이 투스 아델푸스 아우트)
요시야는 여고니야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 유다의 왕위 계승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여기에

서도 몇 사람의 이름이 누락되었다. 요시야의 네 아들(대상 3:15;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중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엘리아김)이 애굽의 간섭에 의해 그의 형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유다왕에 즉위하였다(B.C. 608년; 왕하 23:34). 이 시기에 애굽은 신흥 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패 당했고(B.C. 605년; 렘 46:2-12)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 이후 여호야김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여고냐)에게 왕위를 물려 주었고(B.C. 597년; 왕하 24:6-16), 바벨론의 2차 침략 때 여호야긴과 그 모후, 그리고 신하와 방백 등 1만 여명이 포로로 잡혀갔다(2차포로; B.C. 597년). 그리하여 바벨론은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다(B.C. 597년; 왕하 24:17). 이때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최후 멸망의 해인 B.C. 586년까지 유다를 통치하였다(왕하 24:17-25:7). 한편 요시야와 여고냐(여호야긴) 사이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세 사람이 빠졌는데, 이것은 8절에서의 경우처럼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형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여고냐에게 두 숙부에 해당하는 여호아하스, 시드기야가 그의 형제로 취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고냐, 곧 여호야긴을 여호야김이란 이름과 혼동하여 사본 기록자가 잘못 기술했다는 학설(Clarke)이 있다. 그러나 이 학설보다 오히려 여호야김이 족보에서 생략된 것으로 보고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더욱 환영받는 견해이다. 그렇다면 '그의 형제'란 말은 히브리 문학 기교상 가까운 친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여고냐와 바벨론의 학정을 같이 경험한 동족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Gundry). 한편 유다의 마지막 통치자 시드기야가 족보에서 빠진 이유는 다윗왕의 혈통이 여고냐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바벨론으로 이주해 갈 무렵에 (ἐπι τῆς μετοικεσίας Βαβυλῶνος. 에피 테스 메토이케시아스 바블로노스)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낳은 여고니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의 3차에 걸친 바벨론 유수 중(B.C. 605, 597, 586년) 본 족보의 기사는 제 2차와 제 3차인 여호야긴(여고냐)과 시드기야(맛다니아)시기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 참조.

12. Μετὰ δὲ τὴν μετοικεσίαν Βαβυλῶνος Ἰεχονίας ἐγέννησεν τὸν Σαλαθιήλ, Σαλαθιήλ
 메타 데 텐 메토이케시아스 바블로노스 여코니아스 에겐네센 툰 살라디엘, 살라디엘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Ζοροβαβέλ,
 데 에겐네센 툰 소로바벨

And after they were brought to Babylon, Jechonias begat Salathiel; and Salathiel begat Zorobabel;

Después de la deportación a Babilonia, Jecónías fue padre de Salatiel, y Salatiel de Zorobabel;

바빌론으로 끌려간 다음 여고니야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즈루빠벨을,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 (Μετὰ δὲ τὴν μετοικεσίαν Βαβυλῶνος 메타 데 텐 메토이케시아스 바블로노스)- 이 말은 다윗 혈통의 왕권이 두번째 포로(B.C. 597)로 인하여 사실상 종말을 고했음을 강조한다. 이와 동시에 마치 무덤 속과도 같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다윗의 혈통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존속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시사해 주고 있다. 이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이에서 떠나지 아니 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창 49:10)라고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이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Ἰεχονίας ἐγέννησεν τὸν Σαλαθιήλ, 여코니아스 에겐네센 툰 살라디엘)- 예레미야의 기록(렘 22:30)에 따르면 여고냐는 무자하여 혈통을 잇지 못했

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누가의 기록(눅 3:27)에 의하면 스알디엘은 네리의 친아들이었다. 이러한 난맥상을 종합해 본다면 결국 양자의 절차를 통해 세리의 아들 스알디엘이 여고냐의 뒤를 이어 다윗의 혈통을 잇게 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Σαλαθιήλ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Ζοροβαβέλ 살라디엘 데 에겐네센 툰 조로바벨) - 스룹바벨을 스알디엘의 형제인 브다야의 아들로 기록한 대상 3:19에 의해 본 구절은 난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은 대체로 스알디엘을 스룹바벨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다(스 3:2;5:2;느 12:1;학 1:1;2:2, 23). 마태도 바로 이 기록에 근거해 본 족보를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난점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안은 계대 결혼 제도(신 25:5-10)이다. 스알디엘이 후손 없이 일찍 죽었다면 브다야는 마땅히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위하여 스알디엘의 아내, 곧 형수에게서 스룹바벨을 낳았을 것이다. 한편 스룹바벨은 제 1차 포로 귀환을 인솔하였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 중수 사역을 지휘한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다(스 1-5장). 하나님의 언약이 소용없다는 마음과 의식이 모든 백성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다윗의 혈통에서 꺼지지 않고 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한다. 그리고 여기 스룹바벨은 영광스럽게도 메시아의 예표가 되고 있다(학 2:20-23).

13. Ζοροβαβὲλ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βιοῦδ, Ἀβιοῦδ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Ἐλιακεῖμ,
 조로바벨 데 에겐네센 툰 아비우드, 아비우드 데 에겐네센 툰 엘리아케임
 Ἐλιακεῖ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ζώρ,
 엘리아케임 데 에겐네센 툰 아조르

And Zorobabel begat Abiud; and Abiud begat Eliakim; and Eliakim begat Azor;
 Zorobabel fue padre de Abiud, Abiud de Eliaquim, y Eliaquim de Azor;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아비훗은 엘리아킴을, 엘리아킴은 아졸을,

조로바벨은 아비훗의 아버가 되고 (Ζοροβαβὲλ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βιοῦδ, 조로바벨 데 에겐네센 툰 아비우드) 그리고 아비훗은 엘리아케임의 아버가 되고(Ἀβιοῦδ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Ἐλιακεῖμ, 아비우드 데 에겐네센 툰 엘리아케임) , 그리고 엘리아케임은 아조르의 아버가 되었다(Ἐλιακεῖ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ζώρ, 엘리아케임 데 에겐네센 툰 아조르). 이 시대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설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시대이다. 그 시대에도 또 다른 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족보가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14. Ἀζώρ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Σαδώκ, Σαδώκ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χειμ, Ἀχειμ δὲ ἐγέννησεν
 아조르 데 에겐네센 툰 사독 사독 데 에겐네센 툰 아케임 아케임 데 에겐네센
 τὸν Ἐλιούδ,
 툰 엘리훗드

And Azor begat Sadoc; and Sadoc begat Achim; and Achim begat Eliud;
 Azor fue padre de Sadoc, Sadoc de Aquim, y Aquim de Eliud;
 그리고 아졸은 사독을, 또 사독은 아힘을, 그리고 아힘은 엘리훗을,

그리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Ἀζώρ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Σαδώκ), 또 사독은 아케임을 낳

고(Σαδῶκ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χείμ,), 그리고 아케임은 엘리웃을 낳고(Ἀχεί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Ἐλιοῦ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의 새로운 세대는 아소르에서 엘리웃으로 이어지고 있다.

15. Ἐλιοῦδ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Ἐλεάζαρ, Ἐλεάζαρ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Μαθθάν, Μαθθάν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ακώβ,
에겐네센 톤 야곱

And Eliud begat Eleazar; and Eleazar begat Matthan; and Matthan begat Jacob;

Eliud fue padre de Eleazar, Eleazar de Matán, y Matán de Jacob;

그리고 엘리훗은 엘르아잘을, 또 엘르아잘은 마탄을, 그리고 마탄은 야곱을 낳았으며,

그리고 엘리훗은 엘르아잘을 낳고(Ἐλιοῦδ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Ἐλεάζαρ, 엘리우드 데 에겐네센 톤 엘레아자르), 또 엘리훗은 마탄을 낳고(Ἐλεάζαρ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Μαθθάν, 엘레아자르 데 에겐네센 톤 말단), 그리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Μαθθάν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ακώβ, 마드단 데 에겐네센 톤 야곱),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본 족보 이외의 곳에서는 나타난 바 없다. 이에 대하여 건드리(Gundry)는 아비훗과 야곱 사이에 실린 이름들이 변형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그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역사적으로 정확한 이름들을 '마태가 보는 관점, 즉 왕적 관점에 따라 달리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대상 6:3-14에 기록된 제사장 혈통에 기록된 이름들 가운데 이 이름들을 찾아볼 수 있다.

16. Ἰακώβ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σήφ τὸν ἄνδρα Μαρίας, ἐξ ἧς ἐγεννήθη Ἰησοῦς ὁ λεγόμενος Χριστός.

이야곱 데 에겐네센 톤 이오셉 톤 안드라 마리아스, 에크스 헤스 에겐네데 이에수스 호 레고메노스 크리스토스

And Jacob begat Joseph the husband of Mary, of whom was born Jesus, who is called Christ.

Jacob fue padre de José, el marido de María, de la cual nació Jesús, llamado el Cristo (el Mesías).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는데 이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야곱은...낳았으니 (Ἰακώβ δὲ ἐγέννησεν 이야곱 데 에겐네센)-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내려오는 다윗왕족 혈통이 밝혀졌다. 그러데 누가에 의하면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헬리의 아들로 보고 있다(눅 3:23). 여하튼 마태 족보는 예수의 법적 부친으로서 요셉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혈연적으로는 요셉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 혈통의 왕통을 합법적으로 이어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자손이 아니 신비한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다(22:41-46 참조).

마리아에게서...예수가 나시니라 (Ἰωσήφ τὸν ἄνδρα Μαρίας, ἐξ ἧς ἐγεννήθη Ἰησοῦς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라, 그녀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여기서는 분명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는 마리아의 남편이라, 그녀에게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를 '낳고'로 기록하고 있다. '마리아에게서'란 단정 어구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생식적 노력을 배제하는 동시에 예수의 '처녀 탄생'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물론 처녀 탄생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시내 시리아 사본'(Sinaitic Syriac Version)에 기술된 '처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는 기록은 단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마태가 기술한 족보 전체에 걸쳐 '-를 낳고'의 형식, 즉 '인간의 성적 결합을 통해 낳았다'라는 동사'(γεννωσκειν)로 일관 되어 오다가 여기서는 그 사용이 그친다. 대신 '나시니라'(ἐγεννήθη) 에겐네대),이라는 뜻은 곧 능동태인 '겐나오'와는 달리 수동태 동사로서 인간이 낳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단지 출생의 도구 역할을 했을 뿐임을 강조한 말로 전환되고 있다. 이 동사의 주어는 분명 예수 자신이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예수는 육체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18절)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족보상으로는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합법적인 후손임을 확보해 뉘은 것처럼 역시 그리스도가 인간의 혈통(씨)을 의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본문에 언급된 '마리아'란 이름은 '높여진 자'란 뜻의 히브리어 '미리암'(mairim, 미리암) 의 헬라식 음역이라고도하고, '괴롭다', '쓰다'(mara 마라)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룻 1:20). 하여튼 어땀 것이 되었든지 예수 수태(受胎)의 전후 상황과 조화가 되는 이름임에 틀림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르는 (ὁ λεγόμενος Χριστός. 호 레고메노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예수의 제 2명(Second name)으로서 예수께서 메시아의 직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드러낸 명칭이다(1, 21절 참조).

17. Πᾶσαι οὖν αἱ γενεαὶ ἀπὸ Ἀβραὰμ ἕως Δαυεὶδ γενεαὶ δεκατέσσαρες,
 파사이 운 하이 게네아이 아포 아브라함 헤오스 다우;에이드 게네아이 데카테스사레스
 καὶ ἀπὸ Δαυεὶδ ἕως τῆς μετοικεσίας Βαβυλῶνος γενεαὶ δεκατέσσαρες,
 카이 아포 다위에이드 헤오스 테스 메토이케이아스 바블론노스 게네아이 데카테스사레스
 καὶ ἀπὸ τῆς μετοικεσίας Βαβυλῶνος ἕως τοῦ Χριστοῦ γενεαὶ δεκατέσσαρες.
 카이 아포 테스 메토이케이아스 바블로노스 헤오스 투 크리스투 게네아이 데카텟사레스

So all the generations from Abraham to David are fourteen generations; and from David until the carrying away into Babylon are fourteen generations; and from the carrying away into Babylon unto Christ are fourteen generations.

De manera que todas las generaciones desde Abraham hasta David son catorce generaciones; y desde David hasta la deportación a Babilonia, catorce generaciones; y desde la deportación a Babilonia hasta Cristo, catorce generaciones.

그러므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십사 대이고, 다윗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십사 대이며 바빌론으로 끌려간 다음 그리스도까지가 또한 십사 대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십사 대이고(Πᾶσαι οὖν αἱ γενεαὶ ἀπὸ Ἀβραὰμ ἕως Δαυεὶδ γενεαὶ δεκατέσσαρες 파사이 운 하이 게네아이 아포 아브라함 헤오스 다우;에이드 게네아이 데카테스사레스), 다윗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십사 대이며(καὶ ἀπὸ Δαυεὶδ ἕως τῆς μετοικεσίας Βαβυλῶνος γενεαὶ δεκατέσσαρες, 카이 아포 다위에이드 헤오스 테스 메토이케이아스 바블론노스 게네아이 데카테스사레스), 바빌

론으로 끌려간 다음 그리스도까지가 또한 십사 대이다(καὶ ἀπὸ τῆς μετοικεσίας Βαβυλῶνος ἕως τοῦ Χριστοῦ γενεαὶ δεκατέσσαρες. 카이 아포 테스 메토이케시아스 바볼로노스 헤오스 투 크리스투 게네아이 데카텟사레스). 이스라엘의 역사를 3기로 분할한다면 제 1의 14대는 신정 정치(Theocracy), 제 2의 14대는 군주 정치(Monarchy), 제 3의 14대는 성직 정치(Hierarchy) 등으로 편의상 나눌 수 있을 것이다(Wycliffe). 실로 마태는 그가 수집한 명단을 단순히 기록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들을 분류하여, 어떤 이름은 생략하고(8,11절), 반면에 네 여인의 이름은 의미있게 부가하는 등(3, 5, 6절) 탁월한 예지와 효율적인 방식으로 구성하였던 것이다. 저자가 본 족보를 14란 숫자에 맞추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그중 특별한 의미가 없이 단지 쉽게 기억토록 하기 위한 구분(Michaelis)으로 보는 견해와, 14대씩 3기로 나눈 구분을 7대씩 6기로 나누고 예수의 탄생을 제 7기의 7대(완전 숫자의 상징이며, 메시아 시대의 연명으로 간주;외경 에녹1서 91:12-17;93:1-10)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의도적 도식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Hendriksen, Goodspeed). 그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해석은 예수가 '다윗의 위'를 계승한 왕이심을 증거키 위함이란 것에서 출발한 견해이다. 즉 '다윗'이란 히브리 알파벳 자모의 수가 도합14(다렐이4, 와우가6, 다렐이 4)가 되기 때문이다. 이 족보의 첫번째 14대가 다윗 가문의 여명기와 같다면, 두번째 14대는 대낮 같이 찬란한 번성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14에서는 다윗 가문이 쇠퇴기에 접어들어 가난한 목수의 가문에 다다르며 그 어둠 속에서 큰 별(2:2, 10)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여 '이스라엘의 영광'(눅 2:32)이 되셨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족보를 14대를 한단위로 해서 3부분으로 나누었는데 마태의 기록에는 1명이 누락된 41명만이 소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헨드릭슨(Hendriksen)은 여고냐를 두 번 족보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옛사람으로서의 여고냐(왕하 24:8-12;렘 22:30)는, 포로 이후의 새사람으로서의 여고냐(왕하 25:27-30;렘 52:31-34)로 말이다. 그리고 슈바이쩌(Schweizer)는 다윗을 두 번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건드리(Gundry)는 요셉(족보상)과 마리아(육체상)를 각각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견해로서 포로기도 하나의 세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8. Τοῦ δὲ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ἡ γένεσις οὕτως ἦν. μνηστευθείσης τῆς μητρὸς αὐτοῦ
 투 데 예수 크리스투 헤 게네시스 후토스 엔 므네스튜데이세스 테스 메트로스 아우투
 Μαρίας τῷ Ἰωσήφ, πρὶν ἢ συνελθεῖν αὐτοὺς εὐρέθη ἐν γαστρὶ ἔχουσα ἐκ πνεύματος
 마리아스 토 요셉 프린 에 쉬넬데인 아우투스 유레데 엔 가스트리 에쿠사 에크 프뉴마토스
 ἁγίου.
 하기우

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was on this wise: When as his mother Mary was espoused to Joseph,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with child of the Holy Ghost.

El nacimiento de Jesucristo fue como sigue: estando Su madre María comprometida para casarse con José, antes de que se llevara a cabo el matrimonio, se halló que había

concebido por obra del Espíritu Santo.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Τοῦ δὲ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ἡ γένεσις οὕτως ἦν. 투 데 예수 크리스토스 헤 게네시스 후토스 엔)- 1절과 같이 힘차고 단순 간결한 서술문이다. '나심'(birth)이란 1절의 세계(γένεσις 게네시스)와 동일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탄생' 또는 '역사'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라는 말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서술부인 '이러하니라'(οὕτως ἦν 후토스 엔)에서 그 뜻이 분명해진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기원을 가진 사람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이것이 마태가 기술하려는 그리스도의 기원의 양태인 것이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μνηστευθείσης τῆς μητρὸς αὐτοῦ Μαρίας τῷ Ἰωσήφ, 므네스튜데이세스 테스 메트로스 아우투 마리아스 토 요췌스) - 정혼(약혼)한 상태는 법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혼에 대한 구속력을 지닌다. 이는 분명 오늘날의 약혼보다는 더 엄숙한 관계였고, 간음으로 인하지 않고는 결코 파혼할 수 없는 사실상의 기혼상태였다. 이런 이유에서 22:23, 24에는 정혼 상태에 있는 여자를 '아내'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에 의해 남편과 아내로 일컬어지고 있다(19절). 또한 대략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가지는데,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그 여자는 자동적으로 과부가 되었고, 만약 그 기간 중에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간주되어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신 22:23, 24). 그런 점에서 결혼이란 말은 단지 신랑이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동거)을 말한다고 해도 지나친 설명은 아닐 것이다(25:1-13 참조). 따라서 이로써 이미 예수의 법적 혈통은 획득 되어졌다. 한편 마리아가 본절에서 주어로 쓰임으로 그의 위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πρὶν ἢ συνελθεῖν 프린 에 쉼넬데인) 마태가 이 말을 추가할 때 정혼식에서 실제 혼인식(신부를 데려오는 일)까지의 일정한 기간 사이(대략 1년 소요)로 독자를 이끄는 점에 유의하라. 왜냐하면 성적인 결합은 남편이 그의 아내와 함께 동거하기 위해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 왔을 때 벌어지는 혼인 잔치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정한 혼인예식을 끝내고 동거했을 때만이 성적 결합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αὐτὸς ἐδρέθη ἐν γαστρὶ ἔχουσα ἐκ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아우투스 휴레데 엔 가스트리 에쿠사 에크 프뉴마토스 하기우)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징조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던 수치나 죄악이 비로소 발각되었다(알아내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잉태되었음이 '분명해졌다'는 의미이다. 한편 이 잉태는 성령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잉태에 대한 기사를 훨씬 더 자세히 그려내고 있다(눅 1:26-56). 그런데 '성령을 통한 잉태'라는 말속에는 이교도들의 사상처럼 신과 인간이 한몸을 이룬 결과라는 뜻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다. 그 대신 메시아를 대망하던 시대에 돌연히 나타나리라 기대되었던 지극히 높으신 자, 곧 여호와와의 권능이 성령 안에서 기적적으로 마리아를 잉태시켰던 것이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시면서 인간의 어머니는 주셨지만 아버지를 주시지 않았다.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인간의 아들, 곧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던 (God-Man) 것이다(A. T. Robertson).실로 이와 같은 성육신(Incarnation)의 비밀은 '예수는 육

신을 입으시고 나셨으나, 육신적 이유 때문에 탄생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데에 있다. 즉 그가 육신의 모양으로 나심으로 육신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또한 제 3의 하나님이신 성령의 완벽하신 신적 준비를 통해 나심으로 인간들이 지닌 본원적 죄성을 물려받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이다(Plummer). 실로 예수의 처녀 탄생문제는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이미 실제적으로 선재하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의심할 만한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의 성육신은 모든 신앙인들의 마음의 근거요 출발점이 된다(요 1:14;17:5;고후 8:9;빌 2:5-11;골 1:15-19).

19. Ἰωσήφ δὲ ὁ ἀνὴρ αὐτῆς, δίκαιος ὢν καὶ μὴ θέλων αὐτὴν δειγματίσαι, ἐβουλήθη λάθρᾳ ἀπολῦσαι αὐτήν.

라드라 아폴뤼사이 아우텐

Then Joseph her husband, being a just man, and not willing to make her a publick example, was minded to put her away privily.

Entonces José su marido, siendo un hombre justo y no queriendo denunciarla públicamente, quiso abandonarla en secreto.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Ἰωσήφ δὲ ὁ ἀνὴρ αὐτῆς, δίκαιος ὢν 요셉 데 호 아네르 아우테스 디카이오스 온)- 요셉은 정혼식에 의한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 했다. 여기서 '의로운'(δίκαιος 디카이오스)이란 '곧은', '공정한' 이란 뜻으로서 청렴 결백하여 불의에 굴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실로 그는 공의롭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적어도 여자가 부정했을 경우 둘로 처죽여야 한다는 모세의 율법(신 22:20-24)을 한번쯤 떠올렸을 것이다. 그의 이러한 내면적 갈등은 정혼한 마리아와 파혼하려 마음먹은 데서 발견된다. 여하튼 그는 마리아를 혹독하게 다루어 자신이 참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도 있었겠으나(McNeile) 그는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고 대신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롬 13:8-10)의 미덕으로 문제 해결을 지으려 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가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인 신 그리스도(5:17;롬 10:4)의 법적 부친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법과 사랑을 겸비한 '의로운 사람'이란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꺾고자 하여 (καὶ μὴ θέλων αὐτὴν δειγματίσαι, ἐβουλήθη λάθρᾳ ἀπολῦσαι αὐτήν. 카이 메 델론 아우텐 데이그마티사이 에블레데 라드라 아폴뤼사이 아우텐) 이 구절에 대한 중요한 견해들은 다음과 같다. (1) 요셉은 마리아의 기적적인 처녀 잉태를 알았으나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공개하려 하지 않았으며 결혼을 파기하고자 했다(Gundry,McHugh). 이 견해는 마리아가 요셉에게 자신의 임신 비밀을 얘기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요셉에게 결혼 계획을 취소하지 말라고 계시한 주(主)의 사자의 말속에서(20절) 요셉이 마리아의 처녀 잉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다(Lenski). (3)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한다고 생각되는 마

리아와 양심상 결혼할 수 없었다(Calvin, M. Henry). 위에서 두 번째, 세번째 견해를 조화롭게 취합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문의 '아니하고'(* ,메델론)가 적극적인 마음의 성향을 뜻하는 말로서 요셉이 마리아를 모세 율법이 정하는 징벌에 처하지 않을 것을 확고히 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그리고 '...하고자하여'(ἐβουλήθη 에볼레데)란 아직 행동화하지 않은 미미한 마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말로서 정혼한 그녀와 정식 결혼을 하지않기로 서서히 결심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결국 이 두 단어를 통해 볼 때 그 당시 요셉은 법적으로 허락되는 한도내에서 은밀하게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마리아에게 큰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두사람의 증인 앞에서 그녀의 손에 이혼증서를 '가만히' 줌으로써 이 일을 조용히 묻어 버리려하였다. 요셉은 이렇게 함으로써 의로움과 율법을 무난하게 조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20. ταῦτα δὲ αὐτοῦ ἐνθυμηθέντος ἰδοὺ ἄγγελος Κυρίου κατ’ ὄναρ ἐφάνη αὐτῷ λέγων
 타우타 데 아우투 엔뒤메덴토스 이두 앙겔로스 쿨리루 카트 오나르 에파네 아우토 레곤
 Ἰωσήφ υἱὸς Δαυεὶδ, μὴ φοβηθῆς παραλαβεῖν Μαρίαν τὴν γυναῖκά σου, τὸ γὰρ ἐν
 요셉 취오스 다위에이드 메 포베데스 퍼럴러배인 마리안 텐 귀나이카 수 토 가르 엔
 αὐτῇ γεννηθὲν ἐκ Πνεύματος ἔστιν Ἅγιου
 아우테 겐네덴 에크 프뉴마토스 에스틴 하기우

But while he thought on these things, behold,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unto him in a dream, saying, Joseph, thou son of David, fear not to take unto thee Mary thy wife: for that which is conceived in her is of the Holy Ghost.

Pero mientras pensaba en esto, se le apareció en sueños un ángel del Señor, diciéndole: "José, hijo de David, no temas recibir a María tu mujer, porque el Niño que se ha engendrado en ella es del Espíritu Santo.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ταῦτα δὲ αὐτοῦ ἐνθυμηθέντος 타우타 데 아우투 엔뒤메덴토스)-여기서 '생각하다'는 원어 (ἐνθυμηθέντος '엔뒤메덴토스)는 수동태 제 1과거형 분사로서 생각이 그의 속에 들어오고 있었을 바로 그 상황을 암시한다. 이러한 정황(situation)적 상태를 중요시 여긴 낱스(Knox)는 본 구절을 '하지만 그 같은 생각이 그의 뇌리에 스치기가 무섭게'라고 표현함으로써 요셉의 심각한 내적 갈등의 일면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실로 요셉은 이러한 곤란하면서도 슬픈 사실에 직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극심한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 당시 요셉은 자기 조상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약속(삼하 7:12-16)이 바로 자신과 자신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성취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ἰδοὺ ἄγγελος Κυρίου κατ’ ὄναρ ἐφάνη αὐτῷ λέγων 이두 앙겔로스 쿨리루 카트 오나르 에파네 아우토 레곤)-개역 성경에 빠진 '보라'를 뜻하는 감탄사 (ἰδοὺ 이두)는 어떤 경악할 만한 사건이나 행동을 예시(indication)하는 도입부로 사용되기도 하고(Schalatter), 또는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Hendriksen).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메신저(messenger)의 출현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는데 도움이 된

다. 이 단어는 본서에 61회 마가복음에 8회, 누가복음에 56회, 요한복음에 4회 사용된 바 있다. 특히 사 7:14의 동정녀 탄생 예언에도 동일한 용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여기에 나타난 '주의 사자'는 구약에서 흔히 하나님의 뜻을 이땅에 전달하는 사명을 맡은 메신저를 가리킬 때 이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창16:7-14;22:11-18;출 3:2-4:17). 그런데 이 '사자'는 때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이기도 했으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섰다. 여기서 본문에 언급된 '주의 사자'는 마리아에게 잉태의 소식을 고지(announcement)해 준 천사 가브리엘(눅 1:26)로 짐작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같은 사자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기보다는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하늘의 계시가 재개된 사실에 그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당신의 메신저의 대화를 통해 요셉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이다(Bonard). 한편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한 방법으로서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간혹 사용되었다(창 20:6;삿 7:13;삼상 28:6). 마치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창 37:5, 9, 19) 것처럼 여기 야곱의 아들(16절) 요셉도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누가는 마리아가 꿈이 아닌 실제에 의해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눅 1:26, 27).

다윗의 자손 요셉 (Ἰωσήφ υἱὸς Δαυείδ, 요셉 휘오스 다위에이드)- 주의 사자가 말한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앞에 나온 족보를 연상케 하며, 요셉으로 하여금 다윗의 혈통이 감당해야 할 이 놀라운 역할,즉 메시아 탄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있다. 이 말은 예수의 족보(2-17절)와 성령잉태(18-25절)를 완벽하게 연결시켜 주고 있다.

네 아내로...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μη φοβηθῆς παραλαβεῖν Μαρίαν τὴν γυναῖκά σου, 메 포베데스 파랄라베인 마리안 텐 귀나이카 수) '무서워하다'는 뜻을 지닌 (φοβηθῆς '포베데스')는 2인칭 단수 제 1과거형 수동태로서 단 순히 '두려워했다'는 뜻외에 '그가 주저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의 '두려워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요셉에게 관여하셨을 때, 그는 이미 마리아를 데려오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심 굳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구절을 달리 '마리아 데려 오기를 결코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라'고 표현할 수도있다. 즉 이 말은 천사가 요셉에게 이미 시작한 혼인(정혼)을 완성(신부를 집으로 데려오기)시킬 것을 지시한 것이며, 그로 인해 받게 될 죄책이나 비난을 개의치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잉태는 음행으로 인한 '불결한 잉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잉태'였기 때문이다(18절). 물론 이 말을 요셉이 완전히 이해할리 만무했고 하지만 평범한 유대 신앙인이었던 요셉에게 '성령'에의 언급은 그로 하여금 예수의 출생비밀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 및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게 했을 것이다.

21. τέξεται δὲ υἱὸν καὶ καλέσεις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Ἰησοῦν αὐτὸς γὰρ σώσει τὸν λαὸν αὐτοῦ ἀπὸ τῶν ἁμαρτιῶν αὐτῶν.

라운 아우투 아포 톤 하마르티온 아누톤

And she shall bring forth a son, and thou shalt call his name JESUS: for he sha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Y dará a luz un Hijo, y Le pondrás por nombre Jesús, porque El salvará a Su pueblo de sus pecados."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τέξεται δὲ υἱὸν καὶ καλέσεις	그녀는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Ἰησοῦν	그의 이름을 예수라하라
αὐτὸς γὰρ σώσει τὸν λαὸν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αὐτοῦ ἀπὸ τῶν ἁμαρτιῶν αὐτῶν.	그들의 죄부터

그러므로 아들을 낳으리니 (τέξεται δὲ υἱὸν 텍세타이 데 휘온)- 이는 누가가 기록한 마리아를 향한 수태고지와 거의 흡사한 메시지이다(눅 1:31). 여기서 '낳으리니'(τέξεται 터세타이 데)란 말 속에 불변사 '데'가 사용되어 '그리고 지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20절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 이는 예수의 탄생에 대한 신적 기원을 재삼(again and again) 일컫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요셉은 두려움을 완전히 물리치고 오히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에 자신을 동참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낳 아들이 다름아니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사 9:6)이신 메시야,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Ἰησοῦν 토 오노마 아우투 예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명명권은 아버지에게 있었다(창 4:25). 본 명령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시하심으로 친부권을 행사하고 계시며, 예수의 법적 아버지 요셉을 그의 양부로 임명하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Ἰησοῦ 예수)는 히브리어 (Yhoshua 여호수아) 내지는 짧은 형태의 (Ἰησοῦα 예수아)'(느 7:7)라는 이름의 헬라어 표기이다. 이는 '여호와와 구원이시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서 그가 오신 목적, 곧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종말론적 구원을 베푸실 분으로 이땅에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중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으로 제시된 사람은 (1) 모세의 후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수1-12장)와 (2) 예수의 조상 스룹바벨(스2:2;느7:7)과 (3) 동시대 인물로서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이며, 그 이름이 '순'이라 하는 여호수아(슥6:11-13)이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이 이들의 이름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천사가 시 130:8을 인용한 뒤의 구절이 '예수'라는 이름의 본질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예수'란 이름은 주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와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적어도 예수가 유대인이 대망하던 바로 그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백성(τὸν λαὸν αὐτοῦ 톤 라온 아우투). 이 말은 유대인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위를 내포한 말로서 본래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나, 유대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세례요한과 예수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제자로 삼았으며(3:9;8:11), 따라서 이방인들도 '자기 백성'의 범주에 포함 된다. 즉 '자기 백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통치를 전인적으로 인정하는 모든 '메시아의 백성'을 의미한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ἀπὸ τῶν ἁμαρτιῶν αὐτῶν. 아포 톤 하마르티온 아우톤) 여기서 '죄'(ἁμαρτιῶν 하마르티온)란 말은 화살이 과녁에서 빗나갔다는 의미의 동사 (ἁμαρτανειν '하마르타네인')에서 유래한 말로서 하나님의 뜻(과녁)에 인간의 의지와 행동(화살)이 빗나간

상태를 일컫는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뜻보다 지날 칠 때나 모자랄때 모두를 가리키는데, 예수께서는 바로 인간의 이 같은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치유(healing)하고 덮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결국 이구절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오신 근본목적과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여 메시아적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통치의 참된 본질을 깨닫게 한다(Ridderbos).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그 명에서 초래한 모든 악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할'(20:28)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의 죄 가운데서(in)'-로마의 속박 가운데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죄로부터'(from)-바로 그들의 죄로부터-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구약에서 '구원'(σώσω 소소)이라는 말은 육체의 위험(8:25), 질병(9:21,22) 또는 죽음(24:22)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할 수 있으나, 이 구절에서의 '구원'은 보다 본질적인 구원, 즉 최악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한다. 사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최악은, 비록 항상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재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신약에서 주로 소개하고 있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게 될 포괄적이고도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22. Τοῦτο δὲ ὅλον γέγονεν ἵνα πληρωθῆ τὸ ῥηθὲν ὑπὸ Κυρίου διὰ τοῦ προφήτου
 투토 데 홀론 게고넨 히나 플레로데 토 레덴 취포 퀴리우 디아 투 프로페투
 λέγοντος
 레곤토스

Now all this was done, that it might be fulfilled which was spoken of the Lord by the prophet, saying,

Todo esto sucedió para que se cumpliera lo que el Señor había hablado por medio del profeta (Isaías), diciendo: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의 된 것은...이루려 하심이니 (Τοῦτο δὲ ὅλον γέγονεν ἵνα πληρωθῆ τὸ ῥηθὲν ὑπὸ Κυρίου διὰ τοῦ προφήτου λέγοντος 투토 데 홀론 게고넨 히나 플레로데 토 흐레덴 취포 퀴리우 디아 투 프로페투 레곤토스) '이 모든 일'이란 직접적으로는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처녀 수태에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가리키나, 간접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성취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특별히 여기서 '된 것 은'(γένονεν 게고넨)이란 능동태 직설법 현재 완료형 동사를 취하고 있는 용어로서 어떤 사실이 예언된 바대로 지속적 성취를 통하여 이미 되어졌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말이다. 사실 구약의 수많은 예표론적 사건과 선지자들의 예언적 메시지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해 오셨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예시하신 바를 따라 그 모든 예언을 현실화, 구체화 하셨던 것이다. 실로 하나님에게는 예언적 메시지와 성취적 사건이 결코 모순됨이 없이 진실한 한 짝을 이룬다. 한편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맥네일(McNeil)은 '예수의 삶속에서 나타난 사건들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뚜렷하신 목적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피력한 바 있다.

23. Ἴδοὺ ἡ παρθένος ἐν γαστρὶ ἔξει καὶ τέξεται υἱόν, καὶ καλέσουσιν τὸ ὄνομα

이두 헤 파르데노스 엔 가스티리 엑세이 카이 텍세타이 휘온 카이 칼레수신 토 오노마
αὐτοῦ Ἐμμανουήλ, ὃ ἐστὶν μεθερμηνευόμενον Μεθ' ἡμῶν ὁ Θεός.
아우투 엠마누엘 호 에스틴 메데르메뉴오메논 메드 헤온 호 데오스

Behold, a virgin shall be with child, and shall bring forth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which being interpreted is, God with us.

HE AQUÍ, LA VIRGEN CONCEBIRÁ Y DARÁ A LUZ UN HIJO, Y LE PONDRÁN POR NOMBRE EMMANUEL, que traducido significa: DIOS CON NOSOTROS.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다(καὶ καλέσουσιν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Ἐμμανουήλ, ὃ ἐστὶν μεθερμηνευόμενον Μεθ' ἡμῶν ὁ Θεός. 카이 칼레수신 토 오노마 아우투 엠마누엘 호 에스틴 메데르메뉴오메논 메드 헤온 호 데오스) 이 임마누엘은 한 아기요 한 아들이며, 그 이름은"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9:6)으로서 다윗의 위에 앉아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impartiality)과 정의(justice)로 왕국을 보존하실 것이다(9:7). 이 단어는 '예수'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기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위격과 그분의 사역의 한 단면을 암시한 용어이다(사 7:14). 한편('Ἐμμανουήλ, 임마누엘')은 '함께'(with)라는 뜻의 히브리어 ('עַם' 임)과, '우리와'(us)라는 뜻의 (μανου'마누), '하나님'(God)이란 뜻의 (ἡλ '엘')이 결합된 형태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와 예수가 되실 뿐 아니라 그분이 곧 죄악으로 인해 절망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God with us)분이심을 강조한 호칭이다. 실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실(요일 4:10) 중보자이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요 1:14)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마 28:20) 영원한 하나님 그자체이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실존(existence)을 날마다 인정하는 백성들은(21절)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Ἴδοὺ ἡ παρθένος ἐν γαστρὶ ἔξει καὶ τέξεται υἱόν, 이두 헤 파르데노스 엔 가스트리 에케이 카이 텍세타이 휘온)는 이사야 예언의(사 7:14)의 70인역(LXX)에 따른 인용이다. 이 예언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침략해 올 때를 배경으로 한다. 이때 여호와를 떠나 이방 앗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책망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예언하는 장면이다.

처녀 (παρθένος 파르데노스)- 사 7:14에서 이미 예언된 본 구절은 '처녀 논쟁'(알마 논쟁)로 유명하다. 그 까닭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처녀'를 (ALMA 알마)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성 경험이 전혀 없는 '처녀'(virgin)라는 고유한 어휘 (Betoula 베틀라)와는 의미상 차이가 나는 결혼의 유무와 관계없이 '젊은 여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70인역(LXX)이 히브리어 '알마'를 단순히 '젊은 여자'를 뜻하는 (νεαῖς 네아스)로 번역하지 않고 처녀(παρθένος 파르데노스)로 번역하였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물론 처녀성을 잃고 난 디나를 창34:4에서 단 한번 '파르데노스'로 번역하기는 했으나 '파르데노스'는 확정적으로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처녀(virgin)를 뜻하는 용어이다. 당시의 남자아이의 성인식은 12세이고, 여자아이의

성인식은 13세이다. 13세가 다 된 여자를 처녀로 번역할 수 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로 '알마'로 표기된 사 7:14의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는 '처녀'로 단정지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

(1) '알마'는 일반적으로 '젊은 여자'를 뜻하지만, 구약 성경에 기술된 용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창 24:43; 출 2:8; 시 68:25; 잠 30:19; 아1:3; 6:8) 관용적으로 '처녀'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2)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메시아의 예언과 결부하여 사용된 용어는 '처녀'를 지칭하는 것이지 처녀성의 지속적 유지에 대해 논의한 단어가 아니다. (3) '알마'와 동일 어근인 남성 명사 '에렘'(*)은 결혼전의 풋내기 소년을 일컫는 말이다(삼상 17:56; 20:22).

(4) 고대 비문에 새겨진 '알마'와 동근어 고대 우가릿(Ugarit)어 'glmnt'가 오직 결혼전 여자에게만 사용되었다. 결국 '감추다', '숨기다'는 뜻의 '알람'에서 유래한 '알마'는 처녀성의 계속적 유지에 관심을 둔 용어인 '베틀라'와는 달리 남자와는 격리되어 순결히 자라온 처녀, 곧 동정녀임을 확증

지을 수 있다. 또한 마태복음의 문맥의 전후 관계를 살펴 볼 때에 '처녀'는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눅 1:34)라고 한 것처럼 '동정녀'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 23절과 사 7:14을 어떻게 관련지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에 대한 수많은 견해들 중 타당성있게 생각되어지는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젊은 여인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서 자기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지었다(Unnik, Hill, Taylor).

(2) 이사야의 예언 당시 처녀였던 한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 전에 아하스가 그의 원수들로부터 해방될 것을 말한다(Broadus, La Sor).

(3)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Alexander, Hengstenberg, Young).

(4) 임마누엘은 유다에 남아 있던 의로운 자들로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들을 암시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을 낳은 젊은 여인은 시온이다(Rice). 이상 네 가지 견해보다 가장 합당한 것은

(5) 사 7:1-9:7은 한 단위이며, 7:14은 그 가운데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임마누엘의 탄생은 '미래에의 확증'이라는 해석이다(Motyer). 즉 예언된 임마누엘(7:14)은 결국 유다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8:8), 그의 모든 원수들의 계획을 좌절시키며(8:10),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시기 위해(9:2) 이방의 갈릴리(9:1)에 나타나실 것이다.

24. ἐγερθεὶς δὲ ὁ Ἰωσήφ ἀπὸ τοῦ ὕπνου ἐποίησεν ὡς προσέταξεν αὐτῷ ὁ ἄγγελος Κυρίου, καὶ παρέλαβεν τὴν γυναῖκα αὐτοῦ
에게르데이스 데 호 요셉스 아포 투 취프누 에포이에센 호스 프로세탁센 아우토 호
앙겔로스 퀴이우 카이 파렐라벤 텐 귀나िका 아우투

Then Joseph being raised from sleep did as the angel of the Lord had bidden him, and took unto him his wife:

Quando José despertó del sueño, hizo como el ángel del Señor le había mandado, y tomó consigo a María como su mujer;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므로 요셉이 일어나서...분부대로 행하여 (ἐγερθεὶς δὲ ὁ Ἰωσήφ ἀπὸ τοῦ ὕπνου ἐποί

ησεν ὡς προσέταξεν αὐτῷ ὁ ἄγγελος Κυρίου, καὶ παρέλαβεν τὴν γυναῖκα αὐτοῦ Ἐγε르
 데이스 데 호 이오셉 아포 투 취프누 에포이에센 호스 프로세타켄 아우토 호 앙겔로스 퀴이
 우 카이 파헬라벤 텐 귀나이카 아우투) 하나님의 계시(revelation)가 주어졌던 현몽의 잠에
 서 깨어난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이 돋보인다. 이는 헬라어 원문에는 행동의 주체인 요셉에
 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그의 행위, 곧 '일어나서'(ἐγερθεις Ἐ게르데이스)에 그 강조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요셉의 순종은 마리아가 행했던 '말씀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하는 수동적인 순종에 비하여, '분부대로 행하여...데려 왔으나...동참치
 아니하더니'(24절)는 능동적인 순종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만
 유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모로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 하겠다. 한편 요셉
 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들임으로써 이제 정혼 기간을 마감하고 공식적인 부부가
 된 것이다. 이로써 예수는 실제로 요셉의 법적 아들이 되었다.

25.καὶ οὐκ ἐγίνωσκεν αὐτὴν ἕως οὗ ἔτεκεν υἱόν καὶ ἐκάλεσεν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Ἰησοῦν.
 카이 우크 에기노스켄 아우텐 헤오스 우 에테켄 휘온 카이 에칼레센 토 오노마 아우투 예순
 And knew her not till she had brought forth her firstborn son: and he called his name
 JESUS.

y la conservó virgen hasta que dio a luz un Hijo; y Le puso por nombre Jesús.

그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내다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아기를 예
 수라고 불렀다.

그리고 아들을...예수라 하니라 (καὶ οὐκ ἐγίνωσκεν αὐτὴν ἕως οὗ ἔτεκεν υἱόν καὶ ἐκάλεσε
 ν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Ἰησοῦν. 카이 우크 에기노스켄 아우텐 헤오스 후 에테켄 휘온 카이 에칼
 레센 토 오노마 아우투 예순) 마태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기록한
 다. 여기서 본문의 '동침치 아니하더니'(οὐκ ἐγίνωσκεν αὐτὴν '우크 에기노스켄 아우텐'),
 즉 '알지 못하더니'라는 히브리 문학적 완곡어법으로 '알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야다'(*)
 는 남녀의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눅 1:34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와
 같은 의미의 말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실이 카톨릭의 마리아 '종신 처녀설'을 옹호하지는
 못한다. '아들을 낳기까지'라는 구절은 당연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 탄생 후에야 비로소 정
 상적인 부부 관계를 맺었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예수는 육신적으로 마리아
 의 맏아들(눅 2:7)로서 훗날 혈육으로서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얻게 된다. 한편 계시된 예수
 의 이름은 태어나신지 8일 만에 할례(circumcision)를 받으실 때에 공식적으로 명명되었다.
 이로써 예수의 신분은 법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된것이다.